

처용가 해독의 재검토

고 정 의

I

본고는 처용가에 대한 기존의 해독들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해독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처용가의 해독은 소창진평(1929), 양주동(1942), 지현영(1949), 김선기(1967~1975), 서재극(1974), 김준영(1979), 김완진(1980)등에서 논의되었고 박창원(1987)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들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처용가를 재검토하는 까닭은 이 노래의 문의를 기존의 해독과는 달리 해석하고 그것이 처용랑 설화 내용과 부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문장성분상 몇 개의 어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먼저 기존의 해독들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1. 東京明期月良

소창진평 : 東京 붉은 둘애

양주동 : 시불 불기 다투

지현영 : 서불 불기 다투

- 김선기 : 사라뿔 빨간 딸애
 서재극 : 東京 불기 다투라
 김준영 : 東京 불기 돌아
 김완진 : 東京 불기 다투라

‘東京’은 “東京, 시불, 서불, 사라뿔”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이는 ‘東京’을 음독¹⁾하느냐 훈독하느냐 하는 두 가지 독법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음독과 훈독을 확증시켜줄 어떤 증거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두 독법 모두 문제가 있다. ‘시불’로 해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또 신라시대에서 서울을 ‘東京’이라 하였을지도 의심스럽다. 이기문(1972: 81)의 지적처럼 고려시대에 와서 변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東京’은 음독자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東京’은 그 독법과 아울러 문장성분도 재검되어야 한다. ‘東京’이 ‘明期月良’의 공간적 배경으로 이해되면 제1행은 ‘東京 밝은 달에’가 되어 ‘東京’은 서술어 ‘明期’가 형용사이므로 속격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가 아니고 타동사이면 이는 목적격이 된다. ‘東京’이 속격이나 목적격이나 하는 것은 ‘明期’의 해독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뒤에 오는 ‘明期’를 동사로 보아 목적격 ‘東京(을)’로 해독한다.

‘明期’는 “붉은, 불기, 불기, 빨간”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期’를 관형형 어미로 본 견해와 명사형으로 본 두 가지 해독으로 구분된다. ‘期’를 관형형 어미로 보아 ‘붉은’과 같이 해독할 수 없음은 양주동(1965: 392)에서 지적된 바²⁾이지만 ‘明期’가 ‘月’을 수식하는 관형형이라면 ‘期’가 아닌 다른 형태소가 연결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25수를 검토해 보면 ㄴ관형형에 해당되는 차자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향가명 다음의 ○ 안 숫자는 행수)

- 1) 차자체제는 남풍현(1981)에 의한다.
- 2) ‘明期’를 ‘불근’으로 읽으면 약학계법의 처용가 본구 ‘동경불근드래’와 일치되어 매우 편하나 ① ‘불근’의 ‘ㄴ’을 표현하는 자(이를테면 隰)가 없고 ② ‘근’의 음이 ‘斤, 根’자 등으로 용이히 기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期’자를 쓴 것으로 미루어 원문에 충실하게 ‘불기’로 읽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1) 去隱春皆理米(모죽지랑가①)
- (2) 阿冬音乃叱好支賜鳥隱 白史…(모죽자랑가③)
- (3) 執音乎手母牛放教遣(현화가③)
- (4) 狂尸恨阿孩古(안민가③)
- (5) 露曉邪隱月羅理(천가파랑가②)
- (6) 浮去隱安支下(찬가파랑가③)
- (7) 沙是八陵隱汀理野中(찬기파랑가④)
- (8) 持以支如賜鳥隱心未際叱勝…(찬기파랑가⑦)
- (9) 哀反多羅(풍요②)
- (10) 哀反多矣從良(풍요③)
- (11) 深史隱尊衣希仰支(원왕생가⑤)
- (12) 巴寶白乎隱花良(도술가②)
- (13) 直等隱深陰의(도술가③)
- (14) 早隱風未(제망매가⑤)
- (15) 去奴隱處(제망매가⑧)
- (16) 遊鳥隱城叱勝良(혜성가②)
- (17) 燒燒邪隱邊也藪耶(혜성가④)
- (18) 改衣賜乎隱冬矣也(원가④)
- (19) 影支古里囚淵之叱(원가⑤)
- (20) 但非乎隱焉破□主(우적가⑤)
- (21) 伊吾音之叱恨隱潛陵隱(우적가⑨)
- (22) 慕呂白乎隱佛體前衣(예경제불가②)
- (23) 拜內乎隱身萬隱(예경제불가③)
- (24) 邀里白乎隱(예경제불가⑥), 칭찬여리가⑤)
- (25) 法界滿賜隱佛體(예경제불가⑦)
- (26) 際支萬隱德海勝(칭찬여리가⑦)
- (27) 尺良白乎隱乃兮(칭찬여리가⑩)
- (28) 法界萬賜仁佛體(광수공덕가⑦)
- (29) 菩提向焉道乙迷波(참회업장가②)

(30) 造將來臥乎隱(참회업장가③)

(31) 惡寸翫落臥乎隱三業(참회업장가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주로 ‘隱’이 ‘-ㄴ’을 전사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붉은, 빨간’으로 해독할 수는 없다.

‘明期’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期’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양주동(1965 : 393)에서는 ‘明期’를 명사 ‘붉’ 내지 ‘별기’의 지격형인 ‘별기’로 읽어 ‘돌’(月)의 수식어로 보았다. 서재극(1974 : 21)에서는 중세어의 ‘기리, 너비, 리……’ 등과 같은 구조의 파생명사로 보아 ‘期’를 명사접미사 ‘의’를 표기하기 위한 것³⁾으로 보았다.

‘明期’가 다음의 ‘月’을 수식하는 관형어라면 ‘어간+은/은’과 같은 활용형을 선택하지 않고 ‘명사형+의’와 같은 구성을 선택한 이유와 이 경우 ‘명사형(별기)+의+체언(돌)’의 수식구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워 지격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期’를 명사 파생어접미사 ‘의’로 보아 명사 ‘明期’가 뒤에 오는 체언 ‘月’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체언(별기)+체언(돌)’의 수식구성에서 수식어인 체언으로 ‘별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별기’와의 의미기능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암시로 남광우(1962 : 466)에서 ‘별기돌’을 ‘귀불★수불(추정)귀 밝이술’과 같은 조어법으로 본 견해를 들 수 있다. 서재극(1974 : 18)에서는 중세국어에서 ‘밧고다(易), 깃다(折)…’등과 같이 자·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의 존재가 고대어에서는 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고 ‘붉다’를 타동사로 재구하고⁴⁾ ‘귀밭개술’의 ‘귀밭개’는 ‘밝다’가 타동사임을 조어법상 증언하고 있다고 보았다. ‘明期’의 조어법이 ‘귀밝이술’과 같은 것으로 보면 ‘明期’를 형용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동사로 보아야 하

3) ‘期’를 명사파생 접미사 ‘-의’의 표기로 본 견해로는 남광우(1962 : 446)를 들 수 있다.

4) 양주동(1965 : 394)에서는 ‘밧’을 주로 하는 가창에는 심상한 ‘별기돌’보다 차종 보통 어법을 다소 무시한듯한 ‘별기돌’이 도모혀 여운과 함축이 있음을 느낀다”고 하고, ‘별기돌’의 어의는 ‘돌볼기의 전도어 곧 ‘붉이’의 돌’로 보고 ‘보름달 또는 새벽 달의 뜻으로 보고 있다.

5) 찬기파랑가의 ‘曉邪隱’의 기본형으로 타동사 ‘붉다’를 재구하고 있다.

고 이 경우 ‘불—’을 타동사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이러한 의미기능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期’는 어간형태소의 말음과 사동접사를 표기한 차자로 보아야 하고 ‘明期’의 의미는 ‘밝히는’ 정도로 해독된다.

‘불기’를 이와같이 해독할 경우에도 문제는 다음의 ‘月’을 수식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활용형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박창원(1987 : 150)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보이는 ㄹ관형형의 두 의미가 신라시대에 구분되어 사용되어 단순한 현재를 뜻하는 의미는 어말 관형형어미를 첨가하지 않았을 가능성⁶⁾을 검토하고 있다. ‘불기’와 같은 관형형 형태가 가능 한가는 앞으로 해명될 과제로 남는다.

‘月良’은 ‘달애, ㄷ래, 딸애, ㄷ라, ㄷ라라’등으로 해독되어 ‘良’은 처격어미 ‘아, 애’의 표기로 다루어져 왔다. ‘良’을 처격으로 보면 악한레범·악장가사의 “ㄷ래”와 동일한 것으로 문맥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良’을 처격으로 보는 것은 ‘月’이 ‘月夜’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良’을 처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병채(1980 : 101, 163)에서는 ‘良’을 擧格形 ‘랑’으로 해독하여 “달과”로 해석하였다.⁷⁾ 향가표기에서 공동격 ‘과/와’가 사용된 예가 없고 다만 열거, 동반 등 공통적 의의소를 상징 할 수 있는 거격 ‘良>랑’이 중격으로 공동격의 기능을 점유하여 사용된 바, 청산별곡의 ‘달위랑 다래랑’의 ‘랑’이 바로 거격 ‘良’의 공동격의 예임을 지적하였다.⁸⁾ 이러한 해독과 아울러 본고에서는 ‘良’이 호격으로 사용된 예로 보아 ‘月良’을 호격으로 해독할 수 있으리란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체언에 연결된 차자 ‘良’의 예로 다음 몇을 들 수 있다.

(32) 東京明期月良(처용가①)

(33) 千手觀音叱前良中(도천수관음가③)

- 6) 이두의 관형형중 ‘어간+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형태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 7) 박창원(1987 : 150)에서도 ‘良’을 ‘랑’으로 해독하고 ‘月良’을 ‘달랑’혹은 ‘달랄랑’으로 읽어 “달과 더불어” 혹은 “달과 함께”로 해석하고 있다.
- 8) 박병채(1980 : 163)는 이 擧格 ‘良’이 사용되던 향가시대는 아직 공동격 접미사 ‘와/와’의 발달 이전이었으며, 이 擧格이 공동격을 비롯하여 처격과 대격 등 중격적 기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 (34) 哀反多矣從良 (풍요③)
- (35) 巴寶白乎隱花良汝隱 (도솔가②)
- (36) 一等隱枝良出古 (제망매가⑦)
- (37) 阿也彌陀刹良逢乎吾 (제망매가⑨)
- (38) 手良每如法叱供乙留 (광수공양가⑥)
- (39) 道尸迷反群良哀叱舌 (청불주세가⑧)
- (40) 二功臣良 (도이장가⑥)

(32) ~ (40)의 해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前良中	徒良	花良	枝良	彌陀刹良	手良	群良	功臣良
소창진평	앞 해	의내여	꽃이여	가지애	彌陀刹애	손애	무리여	
양주동	前아히	의내여	고 자	가 재	彌陀刹애	소내	물	功臣여
지현영	前아히	의내여	부리여	가 재	彌陀刹애	손애	물	功臣여
김선기	앞 배	무 라	꽃이라	가달애	미따더래	손라	무라	
서재극	前아히	무 라	고 자	가 자	彌陀刹아			
김준영	前아히	의내아	꽃 아	갓 애	彌陀刹애	손애	물아	
김완진	앞파히	물 아	고 자	가지라	彌陀刹아	썸아	물아	功臣아

위에서 ‘徒良, 花良, 群良, 功臣良’ 등은 호격으로 해독되고 있다. ‘良’이 그 앞에 [+유생적] 명사를 가질 때 호격의 기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月良’의 ‘月’을 [+유생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 ‘良’을 호격으로 해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 하는 것은 문맥에 의하여 판별될 수밖에 없다. 처용가의 문맥으로 보아 ‘良’은 호격으로 해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 서는 ‘달 아’로 읽고 ‘달아’ 또는 ‘달이여’의 뜻으로 해석한다.

2. 夜入伊遊行如可

- 소창진평 : 밤들어 노니다가
- 양주동 : 밤드리 노니다가
- 지현영 : 밤드리 노니다가
- 김선기 : 밤 돌이 노니다가
- 서재극 : 밤 드리 노니다가

김준영 : 밤들이 노니다가

김완진 : 밤 드리 노니다가

‘夜入伊’는 “밤들어, 밤드리, 밤돌이, 밤들이”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夜入伊’는 체언 ‘夜’와 용언 ‘入伊’가 합성된 통사적 합성어인데 이러한 결합이 신라어의 문법에서 허용되었는가는 의문이다. ‘入伊’는 혼독자인 ‘入’에 음가자인 ‘伊’가 연결된 것인데 의미는 대체로 ‘밤늦도록’ 또는 ‘밤늦게 정도로 해석된다. ‘入伊’의 ‘伊’는 접사 ‘-이’로서 중세국어의 ‘니르리’와 조어상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入’의 의미는 ‘出’과 대비된 상대개념으로 ‘終’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夜入伊’는 종래의 ‘밤들도록’이란 해독에 반하여 ‘밤이 끝나도록’의 의미로 해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재극(1974 : 21)에서는 이미 ‘밝은 달’에서 밤은 상징되어 있으므로 ‘入伊’를 밤의 ‘入沒’로 보아 “밤이 지도록”으로 해독하였다.

‘遊行如可’는 “노녀다가, 노니다가”로 해독되고 있다. ‘行’이 음독자로 ‘-니-’를 표기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 이기문(197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니’앞에서의 ‘ㄹ’의 탈락이 중세국어에 들어와서의 ‘현상’이라면 ‘놀니다가’로 해독되어야 된다.

3. 入良沙窠矣見昆

소창진평 : 들어사 자리에 보곤

양주동 : 드러사 자리 보곤

지현영 : 드러사 자리이 보곤

김선기 : 돌아사 자리 보곤

서재극 : 드러사 자뤼 보곤

김준영 : 돌아사 자뤼 보곤

김완진 : 드러사 자뤼 보곤

9) 이기문(1972)에 의하면 “전기 중세어에 있어서는 합성어에서 ‘ㄴㄷㅌㅍㅈㅊ’등 치음 앞의 ‘ㄹ’이 유지” 되어 그 예로 계림유사의 柴日李南木, 향약구급방의 麥門冬 冬乙沙伊, “菴蓼 板蓼”등을 들고, 이러한 환경에서의 “ㄹ”의 탈락은 15세기 후반에도 일부 계속되고 있는 흔적이 있으므로, 이보다 조금 앞선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入良’은 “들어, 드러, 돌아, 드라, 돌아”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모음 조화를 고려하면 ‘들어’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모음조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아’로 해독될 것이다. ‘沙’는 강세첨사 ‘沙’혹은 ‘사’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¹⁰⁾

‘寢矣’는 “자리에, 자리, 자리인, 자리, 자뢰”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의”를 처격 표시로 보면 “자리에, 자리인”로 해독되고, ‘의’를 무시하면 “자리”로 해독된다. ‘의’는 문맥상 처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엄연한 이중모음의 음가자 ‘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왕의 해독에 따르되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자리’로 읽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見昆’은 모두 “보곤”으로 해독하고 있다. 어말어미 ‘-곤’의 의미는 전후문맥으로 보아 설명형으로 해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세국어의 ‘-곤’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변화는 통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脚烏伊四是良羅

소창진평 : 가롤이 네히러라

양주동 : 가롤리 네히어라

지현영 : 가롤리 네히러라

김선기 : 가롤이 낙이러라

서재극 : 갈외 너히아라

김준영 : 가로이 네시아라

김완진 : 가로리 네히러라

‘脚烏伊’는 ‘가롤이, 가롤리, 가롤이, 갈외, 가로이, 가로리’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이렇게 형태상으로 상이한 해독은 ‘伊’가 ‘리’의 음가자일

10) 박창원(1974 : 151)에서는 전체 문맥상 15세기 국어의 ‘사’와 의미가 판이하므로 강세첨사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의 용법상의 변화 또는 ‘沙中偶語’의 ‘沙’ 그리고 전사과정의 와전 가능성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沙’가 전사과정에서 와전되었다면 ‘沙’ 또는 ‘阿’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문맥상 이러한 단어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沙寢’ 또는 ‘阿寢’과 같은 단어의 용례가 문헌상 확인되지 않는다.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리’의 음가로 보지 않으면 “갈외, 가로이”와 같이 해독된다. 이기문(1972)에서는 중세국어의 ‘가랴’의 고대형으로 “*가돌”을 추정하여 “가드리”로 해독하였다. 김완진(1980 : 93)에서는 ‘烏’아래 ‘尸’이 생략된 것으로 보고 ‘가로이’로 해독하며 ‘허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脚’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다리, 가랴, 허퇴’ 등의 용례가 있는바 ‘烏’아래 ‘尸’이 생략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차자에 충실하게 읽어 ‘허퇴’로 해독하는 것이 온당한 독법일 것이다.

‘四是良羅’는 “네히러라, 네히아라, 낙이라라, 너희아라, 네시아라”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良”은 선어말어미 ‘-가-’의 ‘ㄱ’이 ‘ㅣ’모음 아래에서 탈락된 ‘아’의 훈가자이다. 양주동(1965 : 411~4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을 보고 노래한 것이므로 과거나 회상의 시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러’나 ‘라’로 해독할 수는 없다. ‘四’는 ‘넝’의 훈독자이므로 ‘四是良羅’는 ‘네히아라’로 해독된다.

5. 二躬隱吾下於叱古

- 소창진평 : 둘은 나이었고
- 양주동 : 둘혼 내히었고
- 지현영 : 둘혼 내해었고
- 김선기 : 두불깐 우리까운고
- 서재극 : 두불혼 내 하었고
- 김준영 : 두홀은 내 하었고
- 김완진 : 두보른 내해었고

‘二躬隱’은 “둘은, 둘혼, 두불깐, 두불혼, 드홀은, 두보른”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ㅂ은 /b/거나 /β/일 것이므로 ‘두불은’ 혹은 ‘두불은’으로 해독 될 수 있다.

‘吾下於叱古’는 “나이었고, 내해었고, 우리까운고, 나 하었고, 내 하었

11) ‘허퇴’로 해독한 것으로는 남광우(1962 : 472)와 박창원(1987)이 있다. 남광우에서는 사성통해의 ‘허퇴’를 참고하고 ‘烏’의 음을 고려하여 ‘허퇴이’ 또는 ‘허퇴’로 읽고 있다.

고”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폼’은 훈독자로 ‘나’를 표기한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下’가 ‘것’의 의미의 체언이므로 속격으로 해독하여 ‘내’로 읽는다¹²⁾. ‘下’는 ‘해(소유)’나 ‘것’, ‘물건’의 뜻을 나타내는 ‘하¹³⁾’의 차자이다. 제사는 문면에 전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下’는 ‘해’로 해독한다.

‘於叱’은 ‘엇’으로 해독되고 있는데 ‘엇’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양주동(1965 : 416)에서는 ‘것고—엇고’가 ‘거니와—어니와’로 된 것으로 보았고 서재극(1974 : 22)에서는 ‘叱’을 ‘시’로 읽어 ‘叱古’를 ‘시고’의 약형으로 보고 있다. ‘於叱’이 체언 ‘下’와 어말어미 ‘古’사이에 위치하고 제사 ‘是’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를 뜻하는 선어말어미 ‘—았/였—’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다음 행의 ‘誰支下焉古’와의 시제상의 불일치와 현장에서의 상황진술이라는 문맥상의 난점 때문이다. 박창원(1987)에서는 ‘叱’을 용언어간 ‘시’로 보고¹⁴⁾ ‘어시’로 해독하여 ‘내해어시—’로 해독하고 있다.

‘古’는 어말어미 ‘—고’의 음가자이다. 여기서의 ‘古’는 문맥상 전후나열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역접이나 양보로 해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미상 문제가 있다. 향가에서 나열형어미 ‘—고’는 차자 ‘古’와 ‘遣’으로 표기되었다.¹⁵⁾

(41) 民焉狂尸恨阿孫古(안민가)

(42) 他密只嫁良置古(서동요)

(43) 一等隱枝良出古(제망매가)

12) 이 경우 보현십원가에서 5개처 모두 ‘폼衣’로 속격을 표기하고 있음과 대조된다.

13) ‘하’는 물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소유물’의 경우에 쓰이며, 현대어의 ‘해’는 이의 잔영이다. (유창원, 1975 : 247) 세톤에 ㅎ나식 네하를 사리라<초간 박통사 상32> 내 하는 新羅蓼이라 <노절대 하2>

14) ‘叱’을 ‘시’아닌 ‘시’로 보는 이유는 주8에 약간의 설명이 있다.

15) ‘遣’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執音乎手母半放教遣(현화가②)

此地勝捨遣只(안민가⑦)

夜矣卯乙抱遣去如(서동요④)

阿邪此身遣世置遣(원왕생가. 9)

此矣卯有阿米次盼伊遣(제망매가②)

毛如云遣去內尼叱古(제망매가④)

(44) 乾達蒞矣游烏隱城叱盼良望良古(해성가②)

(45)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해성가⑤)

(46) 道尸掃尸城利望良古(해성가⑦)

(47) 日遠烏逸□□過出支遣(우적가②)

(41)~(47)에서 ‘古’가 나열 이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맥상 ‘吾下於叱古’의 ‘古’는 ‘나’로 해독되어야 할 것이므로 박창원(1987)에서는 의훈차해독하여 ‘나’로 해독하고 있다. ‘古’를 어떻게 보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기존의 해독을 좇아 ‘엇고’로 읽는다. 이 경우 ‘엇’을 시제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은 아니다.

6. 二盼隱誰支焉古

소창진평 : 둘은 누이언고

양주동 : 둘흔 누해언고

지현영 : 둘흔 누사해언고

김선기 : 두불간 누기 까안고

서재극 : 두불흔 누히 하언고

김준영 : 두홀은 뉘 하언고

김완진 : 두보른 누기헨고

‘誰支下焉古’는 “누이언고, 누해언고, 누사해언고, 누기 까안고, 누히 하언고, 뉘하언고, 누기헨고”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誰支’는 “누이, 누, 누기, 누히”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誰’는 ‘누’의 혼독자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支’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誰支’의 해독은 달라진다.¹⁶⁾ 유창균(1971 : 563~564)에 의하면 ‘기’로 보는 것은 상고음에 기반을 둔 것이고, ‘지’로 보는 것은 중고 이래의 음에 기반을 둔 것이다.

유창균(1971 : 570)에서는 *nugiro 해독하고 *nugi→*nuhi→nui와 같이 보았

16) 유창균(1971 : 557~560)에서 ‘支’의 해독을 虛字說, 「디·지·기」互轉說, ‘디’, ‘hi’ 유성음간 h목음화의 4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검토, 비판하고 있다.

다. 이기문(1972)에서는 ‘支’가 *hi 또는 *h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¹⁷ 서재극(1974 : 22)에서는 ‘누히’로, 김완진(1981 : 93)에서는 ‘누기’로 해독하고 ‘기’, ‘히’의 자음차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김선기(1969 : 138)에서는 ‘支’를 언제나 ‘디’로 읽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의 견해를 종합하면 ‘支’는 ‘기’, ‘히’, ‘디’의 3가지로 해독되고 있다. ‘支’의 상고음과 방언형 ‘누기’를 고려하여 ‘누기’로 해독하고자 한다. 박창원(1987 : 155)에서는 ㄱ구개음화의 전파지역을 고려하여 ‘누디’로 해독하고 ‘누고’, ‘누구’를 고려하여 ‘기’로 추정할 때 모음변화의 설명이 불가능함을 지적 설명하고 있다. ‘下焉古’의 ‘下’는 앞에서 본 ‘하’로 해독된다. ‘下’와 ‘焉’ 사이에는 계사 ‘이-’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下’는 ‘해’로 해독하는 것이 적당하다.

‘古’는 선행하는 의문사 ‘誰’로 미루어 의문첨사 ‘-고’의 음가자이다. 중세국어의 의문첨사 ‘-고’는 술어가 명사인 경우 체언어간에 직결되었다. 그러나 ‘下焉’을 단일한 체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下’와 ‘焉’은 분리하여야 한다. (박창원 : 1987)

(48) 民焉狂尸恨阿孩古(안민가③)

(49) 手焉法界毛叱色只爲赫(광주공덕가⑤)

(50) 吾焉頓叱進良只(청전법륜가③)

(51)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상수불학가④)

(52) 覺樹王焉(항순중생가①)

(48)~(52)에서와 같이 ‘焉’은 주제화후치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니’을 표기한 차자로 해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합규칙으로 보아 신라어에서 가능한 것이었겠는가 의문으로 남는다. 서재극(1974 : 22)과 박창원(1987 : 155)에서 ‘언’으로 재구하고 ‘-건-’의 변이형태로 해독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선어말어미 ‘-거-’와 의문첨사 ‘-고’의 통합이 신라어에서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17) 이기문(1963 : 70, 1972)에서 향약구급방의 ‘망’(薯蕷)를 ‘[支]’로 표기한 것은 ‘ㅁ’의 곡용형에 나타나는 발음 /h/를 포함한 /mah/ 또는 (차라리) 주격형 /mahi/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7. 本矣吾下是如焉於焉

- 소창진평 : 믿이 내이다마룬
- 양주동 : 본티 내해다마룬
- 지현영 : 본티 내해이다마룬
- 김선기 : 모토이 우리까 이다말은
- 서재극 : 아리 나 하이다마는
- 김준영 : 본티 내하이다마언
- 김완진 : 본티 내해다마룬는

‘本矣’는 “믿이, 본티, 모토이, 아리 ” 등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기문(1961)에서는 ‘미티’로의 독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本’을 혼독자로 본 것이 ‘믿이, 모토이 아리, 미티’ 등이고 음독자로 본 것이 “본티”의 해독이다. 음독이나 혼독이냐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本’이 음독자라면 ‘矣’는 ‘티’의 차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티’로 해독된다. 그러나 남광우(1962 : 479)에서 지적한 바대로 ‘의’는 주로 소유격을 표기한 차자로 ‘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주동(1965 : 419)에서는 이문(吏文)의 토에서 ‘티, 되’로 읽혀진 것을 근거로 ‘冬矣’에서 ‘冬’을 생략한 것일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신라시대에 이러한 표기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본티’의 표기라면 ‘本冬矣’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재극(1974 : 22)에서는 ‘本’이 ‘元來·往昔·舊故’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이전을 표시하므로 ‘根柢·本源’의 ‘밑’系계의 ‘미티’로 읽지 않고 ‘아리’로 해독하고 있다. 남광우(1962 : 480)에서 ‘本’의 혼 ‘밑’이 ‘底’의 뜻을 겸하던 것이 후에 ‘底’의 뜻으로 더 우세하게 쓰이면서 어의의 분파로 ‘本’의 뜻으로 한자어가 대신 등장하여 ‘본티’등 신어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⁸⁾ 본고도 ‘本’을 혼독하여 ‘미티’로 해독하고자 한다.

18) ‘本’의 혼 ‘밑’이 어의의 분파로 ‘底’의 뜻으로 전용되다시피 하여 ‘本’의 뜻으로 한자어가 대체된 것인지 아니면 박창원(1987 : 95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티’ 혹은 ‘미티’등에서 ‘미’의 어원이 불명확해져 ‘本’의 음으로 대체된 것인가는 검토될 문제이다.

‘馮下是如馬於隱’은 “내이다마룬, 내해다 마룬, 내해이다마룬, 우리까이다말은, 나하이다마는, 내하이다마언, 내해다마룬”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馮’는 ‘나’의 훈독자이다. 뒤의 체언 ‘下’를 고려하여 관형격 ‘내’로 해독된다. ‘下’는 앞에서 나온 ‘下’와 동일한 것으로 ‘하’의 음가자이다. ‘是’는 계사의 어간 ‘—이—’를, ‘如’는 훈가로 ‘다’를 표기한 것이다. ‘如馬於焉’을 ‘—다마룬’으로 해독하는 것은 이기문(197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형태소 통합규칙이 ‘—마룬’은 대개 ‘—건, —언’에 후행하였으므로 ‘—다마룬’과 같은 통합관계가 가능한 것이었는가 문제이다. 훈가자 ‘如’로 보아 ‘—언마룬’으로 해독할 수는 없다. 계사의 어간일 ‘是’와 ‘如馬於焉’의 통합관계는 ‘—이다마룬’과 같이 해독할 수 있으나 중세국어에서 ‘—이다마룬’과 같은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합관계가 신라어에서 가능했느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기존의 해독에 따라 ‘내해다마룬’으로 읽히 ‘隱’이 ‘—니’만의 차자인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 馮叱良乙何如爲理古

소창진평 : 세앗거늘 엇디ㅎ리잇고

양주동 : 아사늘 엇디ㅎ릿고

지현영 : 아사늘 엇디ㅎ리고

김신기 : 앓을랑을 아다까리고

서재극 : 아사툼 엇다ㅎ리고

김준영 : 앓으을 엇다ㅎ리고

김완진 : 아사늘 엇디ㅎ릿고

‘馮叱良乙’은 ‘세앗거늘, 아사늘, 앓을랑을, 아사툼, 앓으을’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乙’을 대격어미 ‘—을’의 음가자로 보면 ‘馮叱良’는 ‘아사’ 또는 ‘아사’로 해독되어야 하고 ‘乙’과의 통합관계로 보아 체언이어야 된다. 그러나 신라어에서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가가 의문이고, 이때의 ‘良’을 명사파생접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두 ‘去乙’등의 ‘乙’의 용법으로 미루어 양주동(1965)과 같이 ‘乙’을 “늘”로 보든가 아니면 김완진(1980: 93)에

서 처럼 ‘良’자와 ‘乙’자 사이에 ‘隱’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아사늘”로 해독함으로써 동명사 “-ㄴ”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독에 따르면 의미는 “빼앗은 것을”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독과 관련하여 ‘奪叱良乙’을 ‘奪叱+良+乙’로 분석할 때 ‘良’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앗+아+ㄴ+을’로 분석할 때 ‘아’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이나는 의문이다. ‘良’을 중세국어의 ‘-오/우-’류의 삽입모음으로 볼 수는 없다. 향가에서는 ‘-ㅁ, -ㄴ, -ㄹ’계의 어느것도 명사형표기에 삽입모음 ‘*아-’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신석환, 1986: 71) ‘何如爲理古’를 ‘어찌할 것인가’하는 체념의 표백으로 해독하면 문맥상 ‘奪叱良乙’은 ‘빼앗긴 것을’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良’을 피동의 형태소로 보기는 어렵다. 또 중세국어에서 동명사어미 ‘-ㄴ’은 동사의 어간에 직결되거나 (虞芮質成 ㄱ ㄴ ㄹ로 <용비어천가 11장>),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뒤(그릿 혼 초초 ㄱ ㄴ ㄹ로 <석보상절 六 8>) 그리고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뒤(威化振旅 ㄱ ㄴ ㄹ로 <용비어천가 11장>)에 연결되었다. 따라서 ‘-ㄴ’에 선행된 ‘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ㄴ’, ‘-ㄹ’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이 중세국어에서 보다 고대국어에서는 더욱 일반적이었을 것(이기문 1972: 180)을 고려하면 ‘良乙’과 같은 형태소의 결합은 신라어에서는 가능한 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良’의 일반적 용법으로 보아서는 허용하기 어렵지만 ‘良’이 어간의 일부가 아니라면 선어말어미로 볼 수밖에 없고 선어말어미라면 의도법, 경어법, 시상의 세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으므로 서재극(1974: 22)에서 ‘良’을 ‘알’의 혼독자로 읽고, 완료상 ‘-안’이 활음조로 인하여 ‘-알’이 되었다고 보고, ‘良乙’을 완료상 ‘-알’에 대격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해독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해독에 따르면 의미는 ‘빼앗음을’이 된다. 김준영(1979)에서는 ‘奪叱良乙’을 ‘앗음을’이 ‘앗음을’과 같이 발음된 것으로 보고 “빼앗음을”로 해석하여 8행을 “빼앗음을 어찌하리오”의 의미로 해독하여¹⁹⁾ 명사형으로 보고 있다.

19) 김준영(1979)에서 8행은 “빼앗은들 어찌하리오(빼앗음을 어찌 하리오)”로 해독되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何如爲理古’는 “엇디ㄱ리잇고, 엇디ㄱ릿고, 엇디ㄱ리고, 아따까리고, 엇다ㄱ리고” 등으로 해독되고 있다. ‘如’는 ‘다’로 읽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何如’를 한자어로 보아 ‘어찌’의 ‘엇디’로 해독하는 것은 ‘如’를 ‘디’의 음가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교체형 ‘더’로 읽어 ‘엇더’로 해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는 ‘어찌’로 해석된다.

‘爲理古’는 ‘ㄱ리고’로 해독 되는바 ‘ㄱ릿고’와 같이 ‘ㅅ’을 꼭 보입힐 이유가 없다. ‘ㅅ’의 표기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叱’이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히—’의 보입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何如爲理古’의 주체가 화자인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엇더 ㄱ릿고’의 종래의 해독은 체념의 표백으로 보아 ‘어찌할 것이나 할 수 없지’의 의미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한다.

III.

이상에서 처용가는 다음의 다섯가지 해독여하에 따라 문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東京’의 문장성분을 속격으로 보느냐 목적격으로 보느냐, 둘째, ‘明期’는 형용사인가 타동사인가, 셋째, ‘月良’의 ‘良’이 처격어미인가 호격어미인가, 넷째, ‘奪叱良乙’의 의미는 ‘빼앗은 것을’인가 ‘빼앗음을’인가, 다섯째, ‘何如爲理古’는 ‘어찌할 것인가’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미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독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었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와 같이 해독되어 왔다. 김준영(1979 : 121)의 “빼앗은들 어찌하리오(빼앗음을 어찌하리오)”하는 8행의 해석과 박창원(1987 : 160)에서 1행울 (서울) 밝혀 주는 달과(더불어)”로, 8행울 “빼앗길 것을 어찌 할 것인가”로 해독한 것을 제외하면 문의를 처용의 체념적 태도로 해독한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해독은 첫째로 처용가가 1인칭 ‘나’의 독백체로 되어 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해석의 원인은 ‘月良’의 ‘良’을 처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자표기법에서 ‘良’이 주로 처격을 표기하였고, 악학체법에 실린 고려가요 처용가가 ‘東京 볼곤 두래 새도록 노니다가…’와 같이 표기된 점 그리고 ‘밝은 달에 논다’라는 문맥에서 ‘밝은 달에’가 동사 ‘놀다’의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의식된 까닭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良’을 처격으로 보는 것은 ‘月’을 ‘月夜’의 의미로 보아야만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같이 이 ‘良’을 처격이 아닌 호격으로 해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제8행의 ‘爲理古’라는 의문의 제기과 문맥적 호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良’이 처격이 아닌 호격이므로 이 노래는 달에게 목전에 전개된 상황을 진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처용 자신의 행동과 해결의 방안을 문의 호소하는 형식을 통하여 역신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역신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는 “不見怒”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술양식을 고려하면 처용이 부인과 역신과의 동침장면을 목격하고 ‘빼앗은 것을 어찌할 것인가’하는 체념적 태도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역신이 감복하여……운운하는 설화내용에서 체념이란 문제를 재고하게 된다. 더구나 처용가가 무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8행의 해독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기문(1961: 65~66)에서의 의문²⁰⁾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8행을 ‘처용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났다고 본 종래의 해독에 대하여 “아스톨 엇더 하릿고”는 강조를 위하여 도치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빼앗음을 어찌 하릿고” 즉 “어찌(감히)빼앗음을 하릿고”로 해석하여 진노의 표백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해독의 난점은 처용이 화를 내지 않았다(不見怒)는 설화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해석의 방법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와 같이 ‘良’을 호격으로 보아 나의 달에 대한 하소연으로 해석한다면 ‘공’이 노하지 아니하니 감격하여 아름답다(公不見怒 感而美之)라고 한 역신의 진술은 처용이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 행위도 행하지 않음에 대한 역신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8행을 체념적이 아닌 진노의 표백으로 해독하는 견해에서 본고는 이기문(1960)에서의 해석과 동일하지만 마지막 ‘何如爲理古’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해독하므로 문의는 크게 달라진다.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해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독하면 7행과의 문맥호응에서 ‘본래 내 것이지만(현재 역신이 범하고 있으니) (내가) 빼앗음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로 읽어 본래 나의 부인인 아내를 어떻게 빼앗아야 하느냐고 달에게 묻는 것으로 해독된다.

IV.

이상에서 ‘東京’을 목적어로, ‘明期’를 타동사로, ‘月良’을 ‘달아’로, ‘奪叱良乙 何如爲理古’의 주어틀 나(처용)으로 보고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해독함으로써 이 노래가 처용이 달에게 묻고 하소연 하는 내용을

20) 그러나 이 의문은 이기문(1972)에서는 삭제되었다. 처용가 문맥에 대한 최초의 이 의문은 그 외의 몇 가지 검토와 아울러 매우 시사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진술한 것으로 보았고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처용가의 문의가 설화의 내용에 부합되고 무가적 성격에서도 합리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보았다. 위의 논의에 의거하여 처용가를 해독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해독〉

東京 불귀 ㄷ라
 밤드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보곤
 허튀 네이아라
 두보른 내해엇고
 두보른 누기헨고
 미턴 내해이다마르논
 아사닐 엇더 ㅎ리고

〈현대역〉

(서울) 밝혀주는 달아
 밤 다하도록 놀며 다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로구나
 둘은 내해이지만
 둘은 누구해인가
 본래 내해이지마는
 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문헌〉

- 김선기(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현대문학 145~250.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준영(1979), 향가문학, 형설문화사.

-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 박창원(1987), 처용가의 재검토, 우해 이병선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서재극(1974),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한국학 연구소(계명대).
- 신석환(1986), 향가문법형태소의 분석적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_____ (1972),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승녕(1955),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논문집2
- _____ (1981), 개정증보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종철(1983),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비교연구, 집문당.
- 지현영(1948),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소창진평(1929), 향가 및 이두의 연구.